

모든 것은 다 내게서 비롯됩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탓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탓이오, 하고 살면 편합니다. 순간적으로 참기 어렵겠지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또한 세상일입니다. 내가 동글어지면 남도 동글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정형외과 이상형 교수, 국회의원회관 열린 토론회에서 기조발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이상형 교수는 5월 30일 '재사용 의료기구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최영희 국회의원회관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 부단장으로 참석한 이상형 교수는 '재사용 의료기구에 의한 감염사고와 피해확산 방지 방안 및 이력관리 연구 진행'의 주제를 발표했다.

이상형 교수는 "감염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추적 관리 시스템은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시스템 개발과 설치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추천하는 우수교직원상 시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6월 2일 '환자가 추천하는 우수교직원상 시상식'에서 상장과 부상으로 순금 배지를 수여했다.

이날 선정된 우수교직원은 신장내과 이장욱 교수, 심장내과 도웅정 교수, 산부인과 정혜리 전공의, 42병동 한명희 수간호사, 61병동 박지원 간호사가 수상했으며, 우수교직원상은 외래와 입원환자들이 참여한 환자 경험평가 결과와 칭찬건수 등을 반영하여 선정하고 있다.

권범선 병원장은 "오늘 상은 환자가 뽑아준 상으로 그 의미가 크며, 의료 질 향상과 환자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사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하는 시민건강강좌 강연 및 홍보 진행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6월 8일 식사동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는 주민제안 건강 강연회에 참여하여 건강강좌와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방내과 최동준 교수는 '중풍의 예방과 관리'의 주제로 중풍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고, 병원 이용과 주요 한약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동국대학교병원은 식사동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강좌를 지속할 계획이며, 다음 강좌는 9월 경 시행 예정이다.



정심행 완화의료센터, 부처님오신날 돌봄 행사

정심행 완화의료센터에서는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돌봄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보호자가 직접 연꽃을 만들고, 환자들은 소원나무에 소원등을 달며 소원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는 말기 암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영역의 총체적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원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답답함, 우울감 등 다양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돌봄이벤트도 제공하고 있다.



정심행 완화의료센터, 사별 가족을 위한 모임 가져

정심행 완화의료센터에서는 5월 31일 4층 중강당에서 사별 가족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2017년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로 지정되고 처음으로 열리는 대면 프로그램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완화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다 임종한 고인의 여섯 가족과 의료진, 요법치료사가 참석했다.

이번 사별 가족 모임은 환자와 이별 후 남겨진 가족들이 서로의 아픈 마음을 공유함으로써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이며, 정심행 완화의료센터에서는 분기별로 사별 가족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자비의료실천, 동국대학교병원을 일구는 힘

나누고자 하는
귀한 마음

후원 문의

대외협력홍보팀
031-961-9000

발전기금 기부자

기간 ▶ 2023. 5. 1. ~ 5. 31.

496명

동참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덕선	3,000,000
이선영	1,500,000
이애영	1,300,000
노명서	1,030,000
영인스님	1,000,000
운문사 사리암	1,000,000
혜각스님	1,000,000
학교법인동국대학교	1,000,000
김도현	1,000,000
외 487명	(단위 : 원)

기부자님이 보여주신 숭고한 뜻을 새기어 생명 존중과 자비 의료를 실천하겠습니다.